

# 우리나라 대학진학행동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고찰 - 대학진학자의 진학목적지 선택을 중심으로 -

조영국\*

##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election behaviour of high school leavers, Korea

Joh, Young Kug

**요약** : 본고는 우리나라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이후 대학진학행동의 지역적 패턴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고찰하고, 그 변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교육행동과 노동시장의 상황과 관계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대학교육기회가 양적으로 팽창되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었으나, 실제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중심지역 지향 경향은 대학교육기회가 제한적이었던 1970년대에 비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패턴을 가져오는 배경으로 고용기회의 중심지역 집중 경향,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 채용기준의 상향 조정 등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단층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첫 학교-직장이행단계가 개인의 전 생애이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도 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대졸학력소지자의 과잉공급 하에서 출신대학의 사회적 평판은 개인의 구직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대학의 역사가 오래 되었고 따라서 사회적 평판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대학들이 입지해있다. 이점도 대학진학행동의 수도권 지향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어** : 대학교육기회, 대학진학행동, 노동시장

**Abstracts** : Since early year of 1980' s, the opportunities of higher education of Korea has been expanding and dispersed regionally. Even though it, the university choice attitude of high school leavers has shown preference for universities in core region of Korea. This attitude seems to be affected by som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the unequal distribution of white collar job or professional job, the sectoral and spatial segmentation of higher job market, changing recruiting practice of employer etc.-.

**Key Words** : the opportunities of higher education, university selection behavior, labor market.

### 1. 서론

는 교육기관의 양과 질, 교육기관에의 도달거리 그리고 그 지역의 사회경제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Maier, et. al., 1975). 일정 지역의 교육행동은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

\* 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Hyupsung University), forgeo@hyupsung.ac.kr

지역에서 교육기관이 결여되거나, 교육기관에의 도달거리가 멀면 이것이 교육기회접근의 장애 요소가 된다. 특히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은 상대적으로 더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수요자들은 통학비, 숙박비 등 정규 비용 외에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만 그 교육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특정 집단은 거주지와 교육기관 사이의 상대적 위치라는 요인만으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는다.

교육기회의 지역격차,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교육행동의 공간적 차별성은 단순히 교육문제에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회의 제약은 직업기회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자녀의 교육기회가 제약받게 되며, 더 나아가 자녀의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회계층의 재생산을 초래한다. 같은 논리를 공간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특정 지역이 발전 잠재력이 취약한 공간, 이른바 수동공간, 취약공간의 성격을 갖게 되는 데에는 교육기회의 제약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동공간이기 때문에 현재도 상대적으로 교육기회의 제약을 더 많이 받고, 이것이 다시 지금과 같은 수동공간을 장기적으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교육기회의 제약이 지역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교육기관, 특히 고등교육서비스의 공급은 공공 부문이 전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지리적 밀도, 도달거리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격차는 교육서비스의 공급 문제로도 연결된다.

사회발전 추세에 맞춰 한국의 대학교육기회는 괄목하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로 사회 일반에서는 대학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계층간, 지역간 격차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오히려 대학은 학생수급을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고 과잉교육(over-education), 혹은 학력인플레이션(education inflation)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가족배경과 학업성적, 학업성적과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직업성취간 각각의 상관관계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주장되고 있다(김영화·김병관, 1999).

대학교육의 확대가 진정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발휘된다면, 대졸학력이 노동시장에서 직업획득과 직업지위 나아가 사회적 이동의 발판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시장의 분단,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발달, 고용관행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상당수의 대졸학력 소지자가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두휴,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학력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여전히 교육기회를 둘러싼 사회계층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목고 문제, 8학군 문제, 서울과 지방학교 학력격차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 이면에는 과잉교육 하에서 직업획득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단순히 교육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학력 표징 보다는 구직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자질을 표상해주는 학력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잉교육 하에서 학력의 가치가 완전히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평가될 뿐이다.

이는 결국 교육체제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과 교육체제의 상용관계가 공간적으로 표출된 것이 교육수준이나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중심-주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심-주변

구조는 대학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대학교육기회도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상당히 진척된 여러 국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Fassman and Meusbrger, 1997; Fielding, 1992; Savage, 1988; 川田力, 1992). 그리고 이처럼 고착화된 중심-주변 구조는 노동시장의 지역적 분단, 고용정보의 국지적 유포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공간성과 이 구조에 적응하려는 개인의 교육행동 및 취직행동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혹은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란 것이 입증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수준과 사회적 계층이동 기회의 중심-주변 격차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측면인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공간적 패턴을 고찰하고 그 형성 요인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 2.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학교육기회의 확대과정과 대학진학행동의 지역구조

### 1) 대학교육의 확대과정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수는 해방 당시 7,819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현재 336만명을 초과하는 급속한 양적 팽창을 해왔다. 이제 고등교육 학령인구(18세)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5%를 넘으며,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38%를 넘어섰다. 가히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고등교육기회의 양적인 확대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1955년 대학설치기준령과 1965년 대학학생정

원령의 시행을 계기로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정원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대학정원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성장과 억제를 반복하였다. 그 결과 대학교육의 확대과정은 대체로 1979년 이전의 억제기와 1979-1993년에 이르는 확대기 그리고 1993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대학정원 개방기로 구분될 수 있다(김영철·이정규, 2000). 대학정원 개방화란 기본적으로 일정한 교육시설 기준을 갖출 경우 대학의 신설 및 증원을 허용하는 준칙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1979년 이후 계속된 대학정원의 확대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의 성장은 1979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억제기와 그 이후의 확대기로 크게 양분된다고 할 수 있다.

#### (1) 정원억제기(1979년 이전)

1979년 이전 대학정원 정책의 기본 방향은 최소한의 사회적 수요만을 반영하는 정도 이상의 양적 확대를 억제한다는 데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4년제 대학의 숫자는 1965년 70개교에서 1978년 74개교로 대학 숫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다만 입학생의 숫자는 1965년의 22천명에서 1978년 80천명으로 약 3.6배 정도 증가하였다. 대학 정원 증원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주로 이공계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4년제 대학의 정원을 억제하는 대신에 부족한 산업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년제 대학의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전개하였다. 이 기간동안 2년제 대학의 숫자는 1965년 14개교에서 1978년 112개교로 약 10배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대학 및 대학정원의 분포는 극단적인 서울 집중 경향을 보여주었다. 1965년 당시 전

체 대학의 56%가 그리고 대학입학 정원의 6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1975년의 경우에도 각각 50%와 58%로 10년동안 서울 집중 경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도 주로 당시의 도청 소재지, 즉 지방중심도시에 입지를 하였다. 당시 각 시도의 고등교육기관은 1개의 국립 4년제 대학과 소수의 사립 4년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4년제 대학 교육기회의 시도간 격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립 대학의 입지이었다. 그러나 사립 4년제 대학의 절대 다수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 (2) 정원확대기(1979년 이후)

1979년에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각각 약 3.0천명과 1.6천명의 학생 증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학정원의 증원은 유례없는 대규모 증원이었다.

특히 1979년도의 증원은 2년제 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의 정원이 더 크게 증가하여, 종전의 증원 양상과 대조적이었다. 이는 당시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 압력이 매우 컸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증원 조치였다. 즉 1970년대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고급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대학정원은 억제되어 왔던 바, 이 무렵 학력간 고용 및 임금 격차가 크게 심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교육기회 획득을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의 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증원, 증과를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81년은 다시 한번 한국고등교육기회의 확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 시기였다. 정부는 이 해에 대학문호를 크게 늘려 입시경쟁을 줄이는 대신 대학에서 엄격한 학사관리로 학사 취득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로 졸업정원제를 전면 실시하였다. 졸업정

원제는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입시 경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졸업정원제의 실시는 결과적으로 대학 정원의 엄청난 증대를 가져와 한국 고등교육기회의 양적 확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85년 당시 대학의 숫자는 91개교로 1978년의 72개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대학입학정원도 1978년 약 80천명에서 1985년 약 202천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이후 대학의 숫자와 입학정원이 더욱 늘어나 2000년 현재 대학의 수는 161개교에 이르고 입학정원도 314천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0년 기준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약 38%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50%를 넘기도 한다. 바야흐로 고등교육이 본격적인 대중 교육으로 변화한 것이다.

1985년 이후 대학의 입지 양상을 보면, 이전 시기에 비해 서울 집중도가 크게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겨우 3개교가 새로 늘어났을 뿐이다. 대학정원에 있어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 1985년과 2000년 현재 각각 16.6%과 23.7%로 나타나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인천과 경기의 비중은 계속 해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1975년 기준 인천과 경기 지역이 전국 대학입학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11.2%로 그리고 2000년에는 13.1%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지방의 경우도 과거 지방중심도시가 전체 시도의 대학수 및 대학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점차 지방의 다른 도시에도 대학이 설립되고 대학정원이 늘어나 과거와 같은 집중경향은 많이 둔화되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새로 대학이 입지하고 정원이 늘어나는 지방도시

〈표 1〉 시도별 대학교의 수와 입학정원

| 구분                 | 학교수  |      |      |      | 입학정원(천명) |        |         |         |
|--------------------|------|------|------|------|----------|--------|---------|---------|
|                    | 1965 | 1975 | 1985 | 2000 | 1965     | 1975   | 1985    | 2000    |
| 서울                 | 39   | 36   | 36   | 39   | 13,572   | 33,579 | 65,065  | 74,421  |
| 경기도 <sup>1)</sup>  | 1    | 4    | 11   | 27   | 749      | 2,209  | 22,572  | 41,204  |
| 강원도                | 5    | 4    | 5    | 8    | 357      | 1,711  | 8,011   | 15,423  |
| 충청북도               | 2    | 3    | 4    | 8    | 398      | 1,681  | 8,849   | 14,095  |
| 충청남도 <sup>1)</sup> | 4    | 4    | 9    | 18   | 573      | 1,979  | 15,553  | 40,635  |
| 전라북도               | 3    | 3    | 5    | 8    | 795      | 2,263  | 12,368  | 19,762  |
| 전라남도 <sup>1)</sup> | 3    | 3    | 6    | 17   | 1,437    | 2,997  | 13,458  | 22,590  |
| 경상북도 <sup>1)</sup> | 6    | 5    | 9    | 18   | 1,788    | 5,315  | 24,724  | 38,340  |
| 경상남도 <sup>1)</sup> | 6    | 9    | 14   | 16   | 1,809    | 6,007  | 29,500  | 41,915  |
| 제주도                | 1    | 1    | 1    | 2    | 210      | 512    | 1,834   | 3,025   |
| 전국                 | 70   | 72   | 91   | 161  | 22,088   | 58,253 | 201,934 | 314,410 |

주: 1) 각각 광역시의 대학교 수와 입학정원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가운데 많은 경우가 중심도시 주변에 위치한 도시들이다. 여하튼 대학정원 확대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학의 입지 패턴은 대체로 서울과 지방중심도시 집중 경향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에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경기도의 신설대학 숫자가 많고 대학정원도 크게 늘어났고 수도권 집중 경향은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입지 패턴은 대학정원의 확대가 교육수요자의 밀도와 취업기회의 공간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전개되어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2) 대학진학행동의 지역구조

### (1) 1970년대 대학진학행동의 지역구조

대학과 대학정원이 한정되었던 1978년 이전에 대학의 분포도 지역적으로 매우 편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농촌 출신이나 주변부 지역 출신 대학진학희망자들은 대학진학은 거주이동을 의미하였다. 이 당시의 대학교육기회의 공간구조, 이를 기반으로 한 진학행동의 공간구조를 잘 보여주는 연구가 홍

경희의 연구(1976)이다. 당초 이 연구는 대학진학행동을 도시세력권을 잘 나타내는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가설은 대학진학행동 및 교육기회의 공간구조가 도시세력권과 매우 일치함을 보여주어 당시 교육기회의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원리를 추론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홍경희의 연구에서는 각 지방중심도시 소재의 대학의 취학권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파악하였다. 전국 각 시군이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청주, 춘천, 제주의 8개 도청소재지 즉 지방중심도시에 송출한 학생수를 구해 각 시군의 총송출학생수에 대한 비율을 구하였다. 이 비율은 각 핵심도시에 대한 그 시군의 의존율을 의미한다. 이 의존율이 가장 높은 지방도시가 그 시군의 소속권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각 핵심도시의 취학권은 그 도시로 학생을 송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을 연결한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방중심도시들의 취학권은 중심도시가 소재한 도의 공간적

〈표 2〉 핵심도시의 대학생 유입권의 범역(1970년)

| 유입권 명 | 권역  |
|-------|---|
| 부산권   | 경상남도  |
| 대구권   | 경상북도  |
| 광주권   |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남원, 순창, 고창군                                     |
| 전주권   | 남원, 순창, 고창군을 제외한 전라북도                                       |
| 대전권   | 천원군(현재의 천안)을 제외한 충청남도                                       |
| 청주권   | 충청북도  |
| 춘천권   |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및 경기도 가평군, 양주군                                 |
| 서울권   | 상기의 모든 권역을 제외한 지역, 즉 서울특별시, 양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천원군 |
| 제주권   | 제주도   |

출처 : 홍경희(1976: 46).

범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8개 시군만이 중심도시의 취학권에서 벗어날 정도로 대학 취학권과 도 행정구역의 경계는 완벽하게 일치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홍경희의 후속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각급학교의 학생유입권을 분석하여 지역스케일에서 도시세력권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1970년 당시 각급학교 학생유입권이 교육기관 소재지로부터의 물리적 거리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 있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대학의 학생유입권은 다른 각급 학교에 비해 광역적이며 경상북도의 경우 하나의 대학 학생 유입권(대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당시 경상북도의 대학교육기회는 전적으로 대구에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학의 학생 유입권은 도 행정구역의 경계와 대학소재지로부터의 거리, 송출지역의 중심지 계층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은 대학진학목적지로서 대구에 대한 의존율이 다른 어떤 대학소재지의 그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대구로부터의 직선 거리가 먼 영양군의 대구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합천군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학생유입권이 행정구역 경계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행정구역 경계는 정치적 경계이기도 하지만, 유사한 지방문화가 나타나는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학진학목적지 선택은 익숙한 문화적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진학목적지로서 대구에 대한 의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나 적어도 1%이상을 보여주는 시군(광의의 대구권)으로 경상북도의 경계와 인접해있는 시군, 즉 경상남도의 모든 시군과 충청북도의 대부분 시군 그리고 강원도내 다수 시군 등이 있고, 이외 비지적 지역으로 서울, 부산, 인천, 전주 등 지방중심도시를 포함한 시급 지역과 일부 군도 포함된다. 이러한 광의의 대구권의 구조를 통해 우리는 당시 대학진학행동의 공간구조는 문화적 요인(또는 심리적 요인) 이외 물리적 거리와 중심지 체계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상의 두 연구를 근거로 볼 때, 대학교육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던 1970년 무렵의 대학 취학권 구조는 각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뚜렷하게 분할된 패턴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띠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당시 대학의 수가 많지 않고 따라서 대학간 경쟁도 크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도, 교통이 낙후하여 원거리 유학자체가 어려웠다는 점, 대학의 서열화가 두드러지지 않아 굳이 인접해있고 익숙한 문화권의 대학을 벗어나 진학하려는 열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워낙 대학진학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학희망자들이 대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그 배경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산업화된 노동시장이 아직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가능성에 기초한 중심-주변 구조의 진학행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2) 최근의 대학진학행동의 지역구조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진학 목적지 선택과 관련하여 최근 경향을 잘 보여주는 연구로는 노국향의 연구(1997)가 있다. 이 연구는 1997년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및 재수생을 포함하는 대학 지원자 약 5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수능시

험 성적과 응시자들의 진학희망학과 및 진학희망 대학을 자료로 대학지원자들의 전공 선호도 및 대학선호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비록 실제로 나타난 진학행동을 조사한 것은 아니나, 최근의 진학행동의 지역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지원자들의 불과 29.5%만이 연고지역의 지방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과 인천·경기도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비율은 각각 46.2%와 14.8%로 조사되었다(〈표 3〉참조). 대학지원자의 61% 정도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지역적 편향성을 보여주었다. 또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의 대학지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시도의 경우는 비록 연고지역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연고지역을 제외한 대학진학 선호지역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시험성적을 동시에 고려하면, 대학선호에 있

〈표 3〉 대학지원자들의 출신지역별 대학진학 지망지역

(단위: %)

| 출신 \ 지망 |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   | 전라   | 경북   | 경남   | 제주   |
|---------|------|------|------|------|------|------|------|------|
| 서울      | 70.4 | 22.1 | 1.7  | 3.8  | 0.8  | 0.8  | 0.4  | <0.1 |
| 경기      | 45.2 | 36.7 | 3.3  | 11.1 | 1.7  | 1.4  | 0.7  | <0.1 |
| 강원      | 34.4 | 13.9 | 37.4 | 7.1  | 1.1  | 3.9  | 2.1  | <0.1 |
| 충청      | 31.3 | 9.2  | 0.6  | 54.5 | 1.8  | 1.7  | 0.9  | 0.1  |
| 전라      | 33.9 | 8.3  | 0.6  | 4.0  | 50.8 | 1.2  | 1.4  | 0.1  |
| 경북      | 24.7 | 5.1  | 0.8  | 4.5  | 0.5  | 59.7 | 4.7  | 0.1  |
| 경남      | 25.9 | 4.4  | 0.4  | 2.0  | 0.7  | 7.5  | 59.1 | 0.1  |
| 제주      | 75.7 | 13.9 | 1.2  | 3.6  | 2.3  | 1.5  | 2.0  | 5.2  |
| 재수생     | 56.2 | 12.3 | 1.3  | 7.4  | 3.0  | 14.5 | 18.6 | <0.1 |
| 합계      | 46.2 | 14.8 | 2.3  | 9.1  | 6.4  | 9.5  | 11.7 |      |

주: 진한 글씨는 최고 지망률을 보인 지역이며, 밑줄 친 지역은 두 번째로 높은 지망률을 보인 지역임.  
출처: 노국향, 1997, p.70의 표 4.

어서 수도권 집중 경향을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즉 연고지역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로 조사되었고 상위권 학생일수록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연고지역을 선호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적 때문이며 성적이 허락하는 한 대학지원자들은 서울로 진학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희망전공 계열 그리고 성별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우리나라 대학지원자들의 대학진학행동의 지역구조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방소재 개별대학의 신입생 출신지를 분석해보면, 여전히 대학소재지 인근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불박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영진(2004)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남대학교 신입생들 대략 70% 전후가 광주소재 고등학교 출신학생들이고, 인근의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출신학생들까지 포함하면 90%를 상회하는 등 진학행동에 있어서 연고지 선택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안동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박영환의 연구(1995)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9년~1993년 기간 동안 안동대학교 신입생들의 출신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략 60~70% 전후가 대구·경북권 출신이고 특히 약 50% 전후가 안동시와 그 인근 시군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앞의 노국향의 연구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후자의 두 연구는 실제 선택결과를 분석한 것인 반면에 노국향의 연구결과는 진학목적지 선택의 잠재적 수요를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진학목적지 선택의 잠재적 수요가 실제 결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바로 성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지 수요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수학생들의 진학목적지를 조사하여 지방의 인재 유출현상을 분석한 임정덕·장영재의 연구(1997)와,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이후 수도권과 전남대학교 입시경쟁 양식을 비교 분석한 이두휴(1993)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 요인으로 인한 대학선택의 제약을 덜 받는 학생들의 경우 수도권 지향 경향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안영진의 연구 결과는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이후 지역중심대학인 전남대학교의 학생 취학권이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홍경희의 연구(1976)에 따르면, 1970년의 경우 전남대학교는 광주와 전라남도 전역을 취학권으로 하는 명실 공히 지역중심대학으로 기능하였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대략 70% 전후가 광주지역 출신학생이라는 점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분포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신입생의 지역편중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중심도시가 아닌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대학선택행동을 연구한 조영국(2003)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추정의 타당성을 입증해준다. 특히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복수대학 합격자의 실제 대학선택행동을 조사한 것으로 진학목적지 선택행동에 있어서 공간적 경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충청북도 충주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경우 충주를 포함하여 충청북도 도내 대학을 선택한 비율이 약 37%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도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 약 2/3가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



을 하였고, 대전까지 포함하면 82%에 육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과 도내 이외의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도내 대학을 선택한 사례가 지역중심도시인 청주의 학생들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방소도시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성적 제약이 없다면, 가능한 한 과거의 도 단위 취학권에서 벗어나 중심지역으로 진학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1980년 이후 대학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주변부 지역에 있어서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 선택행동에 있어서 중심지역 지향성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육기회가 급팽창하였던 1970년대 전후 일본의 대학진학이동패턴을 분석한 川田力(1993)의 연구에서 1980년 진학이동패턴도 197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심지역 지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교육체제와 노동시장체제간의 상응관계에서 교육행동을 고찰하고자 하는 교육사회학의 문제의식이나 교육행동의 공간적 특성을 사회경제적 공간구조와 결부시켜 설명하려는 교육지리학의 관점으로 대학진학행동의 지역적 패턴을 규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Meusburger, 1998).

### 3. 노동시장의 구조와 대학진학행동: 진학목적지 선택의 지역패턴에 대한 해석

노동시장에서 대졸 학력을 갖춘 구직자의 공급

이 늘어나면 대졸자의 실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졸자가 과거에 보다 낮은 학력소지자로 충원되던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이른바 직종하향이동이 발생한다. 그만큼 학력의 가치가 떨어지고 노동시장에서 학력효과가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학교육기회의 공급과잉이 나타나면서 과거에 하위직종으로 분류되던 직종으로 대졸자들의 직종하향이동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박세일, 1983; 조영국, 2003).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의 가치가 저하된다면, 경제적인 이유, 심리적 유대 등을 고려하여 출신지역 소재의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진학행동에 있어서 '붙박이 경향'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진학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중심지 지향성은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과잉교육 하에서 대학진학행동의 이면에는 단순히 대졸 학력의 취득이라는 동기 이외에 보다 복잡한 요소가 고려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고용주들은 노동시장에서 동일학력 소지자의 공급이 늘어나면, 보다 상향된 채용기준을 적용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려는 경향이 있다(박세일, 1982). 그러나 구직자의 자질을 판단해줄 수 있는 질적 지표를 적용할 경우 선발비용(screening cost)의 추가적인 부담이 들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구직자의 자질을 손쉽게 판단해줄 수 있는 간접적 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전공분야, 출신대학의 사회적 평가 등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노동시장에 있어서 대졸자 공급과잉, 그로 인한 기업의 채용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구직경

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학과 전공분야로의 진학 동기는 더욱 강하게 표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하나의 노동시장이 입직 경로, 승진경로, 임금, 근무연한 등이 여러 부분노동시장으로 분화되어 부분노동시장 사이의 이동이 매우 어려운 노동시장의 단층화가 이루어져 있다면, 첫 학교-직장 이행 단계에 있어서 개인의 구직경쟁력이 사실상 개인의 전 생애 이력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장상수, 2001).

만일 대학교육으로부터 연계 되는 직업적 지위가 개인이 느끼는 대학교육의 효용 정도를 결정하고, 대학교육으로부터 연계 될 효용의 기대치가 개인의 교육행동 도달범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교육행동의 도달범위 양자간의 상관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단층화는 직종별로도 나타나지만, 공간적으로도 발현된다. 즉 취업기회의 내용과 정도, 임금을 등등의 노동시장 지표에 있어서 국가 전체 평균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직종별 취업기회의 지역적 편재는 구직자의 직업탐색 비용이나 직업정보 접촉 가능성의 크기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로 이어진다. 더구나 구직 장소는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취업기회를 배분하는 의사결정권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거나, 이들 의사결정자들이 대면적 접촉, 비공식네트워크 통한 채

용과 같은 비표준화된 고용관행을 선호할 경우 특정한 직업을 획득할 기회는 더욱 지역적으로 편재될 가능성이 짙다(Fassmann et al., 1997; 박영한 외 역, 2002, 103-107). 이러한 경향은 전문직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결국 대학교육에 대한 교육행동 도달범위는 다른 교육단계와 달리, 거주지역으로부터 교육기관의 입지에 이르는 도달범위만이 아니라 교육장소로부터 노동시장에 이르는 도달범위도 함께 고려되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노동시장과 교육체제간의 이러한 상응관계로 인해 대학교육기회의 확대가 일어나더라도, 교육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출신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행동양식, '불박이경향' 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이후 대학교육기회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지역적으로 분산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일자리의 분포, 특히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과 같이 과거부터 대졸학력 소지자들로 주로 충원되어 왔던 상위직종의 일자리 분포에 있어서 수도권 집중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표 4). 2000년 현재 상위직종의 일자리 중 57%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의 46%에 비해 11% 정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상위직종의 일자리 숫자는 약 560만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약 330만개가 수도권

〈표 4〉 상위직종(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수도권 집중추이

(단위 : 천명, %)

|           | 1970년 | 1980년 | 1990년 | 2000년 |
|-----------|-------|-------|-------|-------|
| 전국        | 1,012 | 1,918 | 3,911 | 6,608 |
| 수도권       | 469   | 990   | 2,129 | 3,745 |
| 수도권 비중(%) | 46    | 52    | 54    | 57    |

자료: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각년도.

에서 늘어나 증가분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인력채용권한의 본사 집중, 기업내부시장의 발달 이외에 필기시험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중심으로의 채용방식 변화, 신입 사원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의 선호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공간적 단층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대학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진학행동의 중심지역 지향성은 오히려 강화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4. 토론 및 정책적 함의

본고는 우리나라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이후 대학진학행동의 지역적 패턴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고찰하고, 그 변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교육행동과 노동시장의 상황과 관계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대학교육기회가 양적으로 팽창되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었으나, 실제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중심지역 지향 경향은 대학교육기회가 제한적이었던 1970년대에 비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패턴을 가져오는 배경으로 고용기회의 중심지역 집중 경향,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 채용기준의 상향 조정 등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단층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첫 학교-직장이행단계가 개인의 전 생애이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도 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대졸학력소지자의 과잉공급 하에서 출신대학의 사회적 평판은 개인의 구직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대학의 역사가 오래 되었으므로 사회적 평

판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대학들이 입지해있다. 이 점도 대학진학행동의 수도권 지향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교육과 관련된 교육행동의 도달범위 체계는 다른 교육행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에 대한 열망과 연관되어, 거주지역으로부터 교육목적지에 이르는 시간적, 경제적 혹은 노력으로 표현되는 거리의 함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학교육과 관련된 공간행동이 가지는 독특성이다. 대학교육은 교육수요자에게 있어서 전문적 직업을 얻기 위한 자격 획득의 창구이며, 보다 고차적인 의미의 문화자본을 얻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가지는 대학교육의 도달범위는 비용의 함수가 아니라 효용의 함수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진학행동의 공간적 전개는 대학소재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노동기회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대학의 입지결정과 증원결정도 이 측면을 고려할 때 대학 자체의 존립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의 대학교육 정책은 교육기회의 공급이라는 좁은 교육 내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입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극히 편협된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인식 태도에는 대학교육행동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 교육시설의 수용량과 도달범위 체계 측면, 또 그것과 노동시장의 수용량과 도달범위체계간의 연계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될 여지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 경쟁력의 약화, 대학선택에 있어서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 지방대학의 위기 등 총체적인 대학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김영철·이정규, 2000, *고등교육 학생수요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영화·김병관, 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교육학연구* 37(1), 156-172.

노국향, 1997, "대학지원 양상에 기초한 한국 고등교육 인구의 분포 분석," *고등교육연구* 9(1), 63-84.

박세일, 1982, "고등교육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I)," *한국개발연구 가을호*, 149-170.

박세일, 1983, "고등교육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II)," *한국개발연구 봄호*, 26-52.

朴英漢, 1995, "大學의 立地가 地域發展에 미치는 영향 분석", *地理學論叢* 25, 1-18.

안영진, 2001,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2), 37-56.

안영진, 2004, "대학신입생의 특성과 취학권:전남대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481-502.

이두휴, 1993, "학력인플레이션과 입시경쟁양식의 지역간 분화",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표, 1994, "기업체 채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학력의 기능 분석", *교육학 연구* 32(4), 167-184.

임정덕·장영재,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20(1), 91-115.

장상수, 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조영국, 2003, "대학교육기회의 확대와 대학진학행동: 충청 북도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145-170.

최영표·한만길·이혜영, 1989, *고학력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

한만길, 1993, "대학정원의확대와 교육기회 분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1(1), 1-21.

홍경희, 1976, "대학생 출신지를 지표로 한 한국 도시의 세력권", *교육연구지* 18, 경북대학교, 43-56.

홍경희, 1978, "각급학교 학생 유입권으로 본 경상북도 도시세력권의 계층구조", *경북대논문집* 25, 37-58.

川田 力, 1992, "わが國における教育水準の地域格差: 大學卒業者を中心として," *人文地理* 44(1), 25-45.

川田 力, 1993, "長野縣佐久地方における大學進學行動と大學新規卒業者の就業行動", *地理學評論* 66A-1, 26-41.

川田 力, 1994, "社會地理學と教育社會學との接點: 教育と社會階層・地域格差の再生産論をめぐって," *人文地理* 46(2), 187-202.

モイスブルガー, 1990, "教育地理學の課題と研究領域," *人文地理學研究* 14, 257-277.

川田 力, 2003, "大學進學と人口移動," *地理* 48(6), 15-21.

Bradford, M. G., 1990, Education, Attainment and the Geography of Choice, *Geography* 75(2), 3-16.

Clark, A. T., 1989, Urban Schools and the Changing Metropolitan Labor Market, *The Urban Review* 21(4), 227-250.

Fassmann, H. & Meusburger, P., 1997, *Arbeitsmarktgeographie: Erwerbstaetigkeit und Arbeitslosigkeit im raeumlichen Kontext*, Stuttgart: Teubner (박영한·이정록·안영진 옮김, 2002, *노동시장의 지리학*, 서울: 한울).

Fielding, A. J., 1992, Migration and Social Mobility: South East England as an Escalator Region, *Regional Studies* 26(1), 1-15

Lowe, J., & Viterito A., 1989, Differential spatial attraction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 Geography* 65(3), 208-215.

Meusburger, P., 1998, *Bildungsgeographie: Wissen und Ausbildung in der raeumlichen Dimension*, Berlin, Spektrum Akademischer Verlag.